

# 파키스탄의 복합위기와 시사점

김경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(kimpolecon@kiep.go.kr, 044-414-1263)



## 차 례

1. 파키스탄의 디폴트 우려 확산
2. 파키스탄의 복합위기
3. 시사점

## 주요 내용

### ▶ 파키스탄 내 경제 및 정치 상황이 악화되면서 디폴트 가능성이 다시 제기됨.

- 지난 2년간 달러화 대비 파키스탄 루피화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, 2022년 4월 디폴트를 겪은 스리랑카의 환율 상승 폭을 넘어서고 있음.
-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파키스탄을 '매우 높은 위험' 국가로 분류하는 가운데, 경제 및 정치 불안이 심화되자 신용등급의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함.

### ▶ 파키스탄 내 불안의 배경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5대 위기가 있음.

- [채무 위기] IMF가 구제금융 요구조건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의 불이행을 이유로 2022년 8월 이후 자금지원을 중단한 가운데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는 수입액 1개월 치 규모로 감소함.
- [생활고 위기] 2023년 4월 36%에 달하는 물가상승률과 생필품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파키스탄 국민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.
- [기후 위기] 파키스탄이 2022년 3~6월 기록적인 열파(熱波)와 6~10월 사상 최악의 홍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아직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, 기후 관련 피해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됨.
- [정치 위기] 2022년 4월 불신임 투표 가결 이후 총리직에서 물러난 임란 칸 전 총리가 대규모 시위를 진두지휘하며 지지기반을 강화한 상황에서, 2023년 10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둔 5월 칸 전 총리가 긴급 체포되자 정정 불안이 급격히 심화됨.
- [외교 위기] 국제질서가 파편화(fragmentation)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노골적으로 친중국, 반인도 성향인 파키스탄과 거리를 두고 있음.

### ▶ 5대 위기로 인해 당분간 파키스탄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.

- 한국정부는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현지 교민의 안위를 고려해 △IMF 구제금융 △반정부 시위 △대규모 홍수 및 피해 복구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, 향후 전개될 다양한 상황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## 1. 파키스탄의 디폴트 우려 확산

### ■ 최근 파키스탄에서 경제·정치·사회적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디폴트 가능성이 다시 제기됨.<sup>1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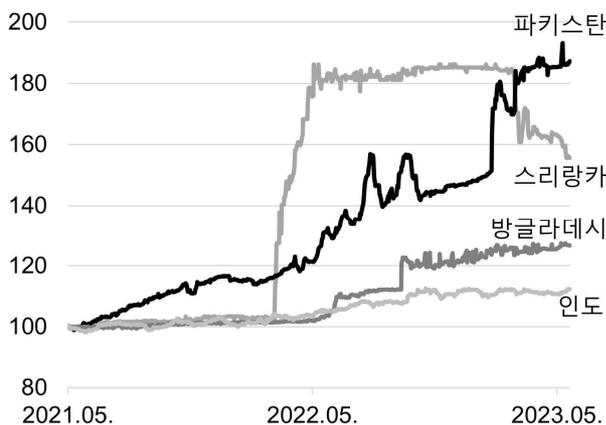
-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불안이 심화되자 2019년 7월부터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시작함.
  - 2010년대 파키스탄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가 지속되면서 국제수지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, 경기순응적인 정부지출과 함께 공공부채가 대폭 확대됨.
-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△코로나19 팬데믹 △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 △국제금리 상승 △국내 정치 혼란 등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됨.
- 각종 악재가 장기화되면서 2021년 중순 이후 파키스탄 루피화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됨.
  - 2022년 4월 디폴트를 겪은 스리랑카보다 파키스탄이 지난 2년간 더욱 큰 폭의 환율 가치 절하를 경험함(그림 1 참고).
- 최근 국내외 상황이 급변하면서 파키스탄의 디폴트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음.
  - 2023년 2월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파키스탄의 신용등급을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Caa3로 하향 조정했으며, 5월에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함(그림 2 참고).<sup>2)</sup>

### ■ 본고에서는 파키스탄이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5대 위기를 분석함.

- 채무, 생활고, 기후, 정치, 외교 등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험요인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개 과정을 전망하고자 함.

그림 1. 남아시아 주요국의 달러화 대비 환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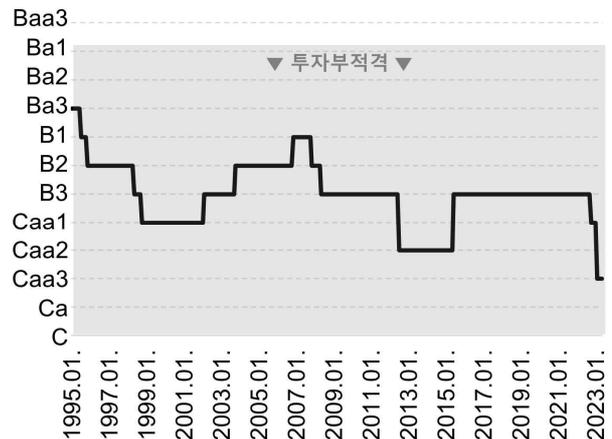
(단위: 2021. 5. 1 환율=100)



자료: Eikon.

그림 2. 파키스탄의 신용등급(무디스)

(단위: 등급)



자료: World Government Bonds.

1) 본고에서는 2022년 하반기 파키스탄의 디폴트 가능성을 분석한 김경훈, 남유진(2022), 「파키스탄 경제 불안 현황과 전망」,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2-29,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 이후 약 1년 동안의 전개 상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함.  
2) Yap, Karl(2023. 5. 9), "Pakistan could default without IMF bailout," *Bloomberg*.

## 2. 파키스탄의 복합위기

### 가. 채무 위기

#### ■ 2010년대 중반부터 파키스탄 정부의 채무 상황이 양적, 질적으로 악화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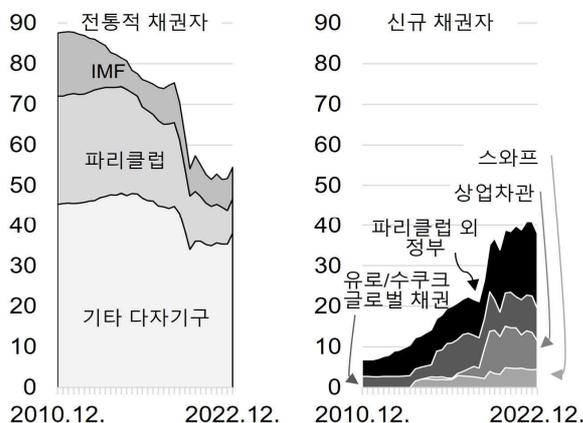
- 파키스탄 정부부채가 외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됨.
  -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16년 6월 61%에서 2022년 6월 77%로 증가했으며, 총 정부부채 대비 외채 비율은 같은 기간 32%에서 40%로 증가함.
-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금리 변동에 민감한 부채가 크게 확대됨(그림 3 참고).
  - 2020/21년 중국정부(LIBOR 12개월+1%), 중국개발은행(LIBOR 12개월+3%), 유로채권(6%, 7.375%, 8.875% 고정)의 신규 채무 금리가 독일(0.75% 고정), 프랑스(0.25% 고정), ADB(2% 고정, LIBOR 6개월+0.6%)보다 높음.<sup>3)</sup>

#### ■ 파키스탄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되었고, IMF 구제금융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됨.

-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2019년 8월 74억 달러에서 2023년 4월 50억 달러로 가파르게 감소하였으며, 현재 외환보유고는 수입 1개월 치에 불과함(그림 4 참고).
- 파키스탄 정부는 2019년 7월~2022년 8월 사이 IMF의 확대신용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다섯 차례 자금을 지원받았으나, 이후 협상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면서 9개월 동안 추가 구제금융을 확보하지 못함.
  - 지원계획(2022년 8월 기준)에 명시된 9차 실사(2022년 11월), 10차 실사(2023년 2월), 11차 실사(2023년 5월) 이후 총 19억 5,000만 SDR(약 26억 달러)의 구제금융이 미지급됨.
  - IMF는 △세수 기반 확대 △전력 및 연료 가격 정상화 △전력산업 부채문제 해결 △국유기업 지배구조 개선 △금융업 규제개혁 등 구제금융 요구조건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의 불이행을 지적함.

그림 3. 파키스탄 공공외채의 주요 채권자별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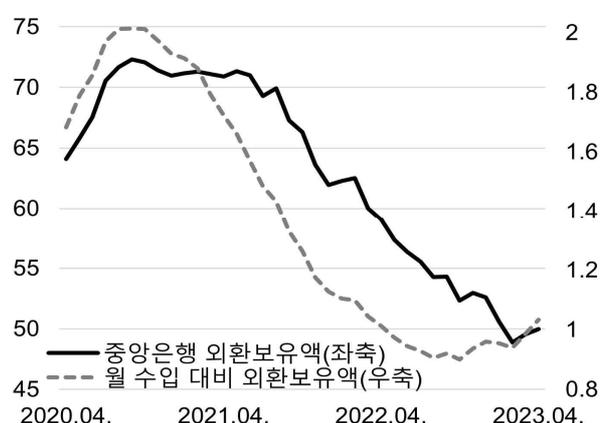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자료: State Bank of Pakistan.

그림 4.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

(단위: 억 달러, 개월 치)



자료: State Bank of Pakistan.

3) 2020/21년 유로채권을 세 차례 발행함. Finance Division, Government of Pakistan(2022), "Pakistan economic survey 2021-22."

## 나. 생활고 위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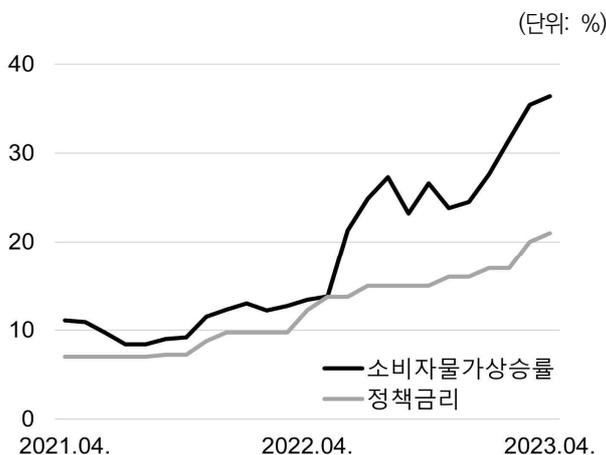
### ■ 생필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급상승하면서 다수의 국민이 극심한 생활고를 경험하고 있음.

- △국제 자원가격 상승 △파키스탄 루피화 절하 △열악한 수송 및 저장 시설 등으로 인해 파키스탄의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3년 4월 사상 최고치인 36.4%를 기록함(그림 5 참고).
  - 생활 수준과 직결된 식품 및 비알코올 음료 물가가 48.1% 증가했으며, 교통 관련 물가는 56.8% 증가함.
- 물가를 통제하기 위한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대대적인 통화긴축도 경제활동을 제약함(그림 5 참고).
  -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021년 8월 7%에서 2023년 4월 21%로 인상했으나, 물가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통화긴축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.
- 물가상승과 소득 감소로 인해 정부의 식량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식량 배급소에서 압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.<sup>4)</sup>
- 세계은행은 2017년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일일 소비액 3.65달러 미만인 파키스탄의 빈곤층 인구가 2018년 8,750만 명에서 300만 명 가까이 증가해 2023년 9,000만 명 또는 전체 인구의 37%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함.<sup>5)</sup>

### ■ 파키스탄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확보하기 위해 긴축 및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 중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화될 전망이다(그림 6 참고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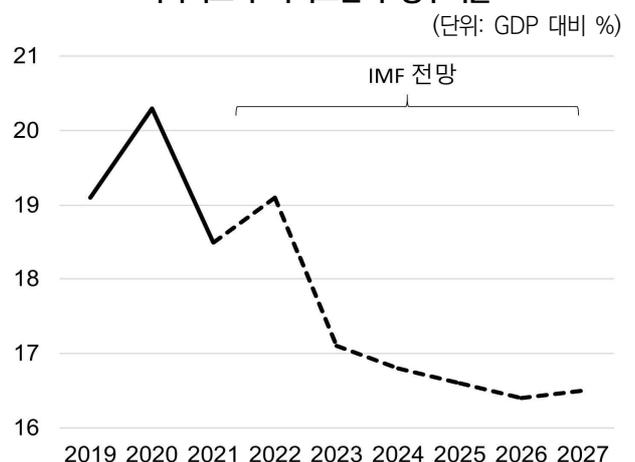
- IMF의 구제금융 조건은 파키스탄의 역진적인 세제를 개혁하기 위한 전기 및 연료 보조금 축소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포함하고 있지만, 정부의 행정역량 고려 시 단기간 내 취약계층 선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<sup>6)</sup>

그림 5. 파키스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정책금리



자료: Pakistan Bureau of Statistics.

그림 6. 7~8차 실사 기준 IMF 구제금융 조건부 이행 시나리오하 파키스탄의 정부지출



주: 6월 30일 종료되는 회계연도 기준임.

자료: IMF.

4) "Five killed in stampedes at flour distribution sites in Pakistan"(2023. 3. 30), Reuters. "Eleven killed in stampede for food aid in southern Pakistan"(2023. 4. 1), Reuters.

5) World Bank(2023), "Poverty & equity brief: Pakistan."

6) IMF(2022), "Pakistan: Seventh and eighth reviews under the extended arrangement under the Extended Fund Facility."

## 다. 기후 위기

### ■ 홍수 피해로 인해 이미 열악한 파키스탄의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됨.

- 파키스탄은 2022년 6~11월 폭우로 인해 사상 최악의 홍수를 경험함.<sup>7)</sup>
  - 2022년 8월은 1961년 이후 파키스탄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8월로 기록되었으며, 신드주와 발루치스탄주의 강수량은 평년 8월의 각각 6배, 7배에 달함.
  - 국토 3분의 1 이상이 물에 잠기면서 3,30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, 홍수에 따른 사망자는 1,739명, 부상자는 1만 2,867명에 달함.
- 홍수가 직접적으로 경제에 미친 영향은 파키스탄 GDP의 2.2%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.
  - 농수산업, 제조업,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각각 GDP 대비 0.9%, 0.7%, 0.6%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.
- 2022년 홍수로 인한 피해액은 149억 달러였으며, 주택(56억 달러), 농수산업(37억 달러), 운송 및 통신 인프라(33억 달러) 부문에 대한 손실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됨.<sup>8)</sup>
- 홍수 복구 비용이 163억 달러로 예상되는 가운데, 국제 지원이 계획보다 더디고 파키스탄 정부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.
  - 2023년 3월 기준, UN의 8억 달러 규모 인도주의적 지원계획 중 30%의 자금만이 확보됨.<sup>9)</sup>

### ■ 열파에 따른 피해도 파키스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.<sup>10)</sup>

- 2022년 5월 파키스탄 일부 지역의 온도가 섭씨 50도에 달했고, 대부분 지역의 온도가 평년보다 5~8도 높았던 것으로 집계되었으며, 이는 1901년 이후 가장 더웠던 여름 중 하나로 기록됨.
- 2022년 열파로 인해서 파키스탄과 인도 북부에서 90명이 사망했으며, 열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발생한 식량위기를 더욱 심화시킴.
- 고열로 인해 파키스탄에서 연 270억 노동 시간이 손실되고 연 590억 달러(2017년 구매력평가지수 기준) 규모의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.<sup>11)</sup>

### ■ 기후변화로 인해 파키스탄이 겪는 피해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.

- 지구 온도가 산업화 전에 비해 섭씨 1.2도 상승한 결과, 파키스탄이 2022년 수준의 열파를 경험할 가능성이 약 30배 증가함.<sup>12)</sup>
- 홍수, 열파 등 기상이변이 2050년까지 파키스탄 GDP의 6.5~9.0%를 감소시킬 전망이다.<sup>13)</sup>

7)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(2022), Daily SITREP No 158 dated 18<sup>th</sup> November, 2022.

8) Ministry of Planning Development & Special Initiatives(2022), "Pakistan floods 2022: Post-disaster needs assessment."

9) "UN continues to support Pakistan flood response"(2023. 3. 7), *UN News*.

10) "Climate change made heatwaves in India and Pakistan '30 times more likely'"(2022. 5. 24),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.

11) Parsons, Luke *et al.*(2022), "Global labor loss due to humid heat exposure underestimated for outdoor workers," *Environmental Research Letter*.

12) Zachariah, Mariam(2022), "Climate change made devastating early heat in India and Pakistan 30 times more likely," *World Weather Attribution*.

13) World Bank(2022), *Country climate and development report: Pakistan*.

## 라. 정치 위기

■ 2022년 4월 총리 불신임 투표가 의회에서 가결된 이후 물러난 임란 칸 전 총리는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진두지휘함.

- 2022년 초 당시 야당연합은 '2018년 임란 칸 총리의 집권 후 정책 실패가 경제위기를 초래했다'고 주장하며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였고, 의회에서 투표가 가결되면서 사상 최초로 총리가 퇴출당함.<sup>14)</sup>
- 임란 칸 전 총리는 본인을 '국민이 민주적으로 선택한 총리'라고 주장하며, 국민의 평가를 받기 위해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('대장정': long march)를 지난 1년간 추진함.<sup>15)</sup>
- 2022년 7월 파키스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편자브주의 주의회 보궐선거에서 임란 칸 전 총리의 PTT당이 20석 중 15석을 확보하면서 조기 총선 요구에 대한 명분이 강화됨.<sup>16)</sup>

■ 임란 칸 전 총리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현재 야당(PTI당)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며 무력시위가 확산됨.

- 2022년 4월 불신임 투표 가결 이후 100건 이상의 위법 의혹을 받고 있는 임란 칸 전 총리는 정부와 현 집권여당,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상당한 권력을 가진 군부가 본인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함.
  - 2022년 8월 파키스탄 경찰은 임란 칸 전 총리의 경찰과 판사에 대한 비판이 반테러법에 저촉된다고 기소하였고, 언론 규제기관은 칸 전 총리 연설의 실시간 텔레비전 중계를 금지함.<sup>17)</sup>
  - 2022년 10월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부패 사건을 문제삼으며 임란 칸 전 총리의 의원직과 5년 동안의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함.<sup>18)</sup>
- 2022년 11월 임란 칸 전 총리가 다리에 총상을 입고, 2023년 3월 경찰이 칸 전 총리의 거주지 진입을 시도했으며, 2023년 5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칸 전 총리가 법원에 출두했을 당시 긴급 체포되는 등 가시적인 위협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지세력의 시위가 과격화됨.<sup>19)</sup>

■ 차기 총선이 2023년 10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정 불안이 심화될 전망이다.

- 2022년 2월에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62%가 '현재 경제위기는 집권여당연합의 탓'이라고 응답했으며,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치인으로는 임란 칸 전 총리를 선정함.<sup>20)</sup>
- 경제상황 및 임란 칸 전 총리를 둘러싼 사건이 칸 전 총리의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가운데, 칸 전 총리의 총선 참여 금지가 확실시될 경우 시위 열풍이 격화될 전망이다.

14) "Imran Khan loses no-trust vote, prime ministerial term comes to unceremonious end"(2022. 4. 9), *Dawn*. "Pakistani opposition moves no-confidence motion to seek PM Khan's ouster"(2022. 3. 9), *Reuters*.

15) "Long march could go on for 10 months: Imran"(2022. 3. 11), *Dawn*. "PTI's long march to Islamabad on May 25: Imran Khan"(2022. 5. 22), *Dawn*.

16) "PTI stuns PML-N with thumping win"(2022. 7. 18), *Dawn*.

17) "Former Pakistan PM Imran Khan charged under 'anti-terror' law"(2022. 8. 22), *Al Jazeera*.

18) "Imran Khan disqualified in Toshakhana reference"(2022. 10. 21), *Dawn*.

19) "Attempt on Imran Khan's life shocks nation"(2022. 11. 4), *Dawn*. "Imran Khan arrested from IHC; court deems ex-PM's arrest legal"(2023. 5. 9), *Dawn*. "PTI protests police raid on Imran's residence"(2023. 3. 20), *Dawn*.

20) Gallup Pakistan(2023), Public pulse report: March 6, 2023.

## 마. 외교 위기

■ [인도] 파키스탄과 인도 간 국경분쟁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 총선을 앞두고 인도정부가 파키스탄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.

- 인도는 1948년부터 총 네 차례 파키스탄과 전쟁을 치렀는데 이 중 세 차례의 원인이었던 카슈미르 국경 분쟁문제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, 최근 양국의 관련 정책 변화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됨.<sup>21)</sup>
  - 2019년 인도정부는 잠무·카슈미르주의 특별자치권을 폐기하고 해당 주를 잠무·카슈미르와 라다크 등 두 곳의 연방직할지로 지정하였는데, 파키스탄은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에 불만을 표하고 해당 지역 무슬림 인구의 안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함.<sup>22)</sup>
  - 인도정부는 파키스탄 정부가 테러리스트 단체를 방관 및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으며, 2019년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Jaish-e-Mohammad(JeM)의 테러로 인해 인도 경찰 40여 명이 사망하자 양국 관계가 더욱 냉각됨.<sup>23)</sup>
  - 인도정부는 중국과도 국경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, 파키스탄이 실효지배하고 인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중국이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함.<sup>24)</sup>
  - 인도정부가 G20 관련 행사를 카슈미르 지역에서 개최하자 파키스탄 정부는 반발했고, 중국정부는 불참함.<sup>25)</sup>
- 2024년 인도 총선 전후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테러단체가 인도에 피해를 입힐 경우 인도정부가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.
  -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상기 언급된 테러사태가 발생하자, 인도정부는 테러단체에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 1971년 이후 처음으로 파키스탄 내 공습을 단행한 바 있음.<sup>26)</sup>

■ [미국]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및 대테러 전략, 인도-태평양 지역 내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, 미국이 파키스탄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요인은 제한적임.<sup>27)</sup>

- 200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중반 당시 미군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했던 파키스탄에 미국정부가 대규모 원조를 제공했으나, 2000년대 말부터 파키스탄 정부가 탈레반 세력에 안식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국 관계가 급랭함.
  - 2011년 파키스탄에서 수년간 도피하고 있던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군이 발견하고 사살한 후, 빈 라덴에 대한 정보를 파키스탄 정부가 숨기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.<sup>28)</sup>
- 202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 미국 관점에서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역할이 축소되었음.<sup>29)</sup>

21) "Timeline: India-Pakistan relations"(2019. 3. 1), *Al Jazeera*.

22) "Indian-administered Kashmir broken up: All you need to know"(2019. 10. 30), *Al Jazeera*; "Kashmir: facing multiple assaults"(2023. 1. 9), *Dawn*.

23) "Pulwana attack: India will 'completely isolate' Pakistan"(2019. 2. 15), *BBC News*.

24) "India expresses strong opposition to China Pakistan Economic Corridor, says challenges Indian sovereignty"(2018. 7. 12), *The Economic Times*.

25) "China and Saudi Arabia boycott G20 meeting held by India in Kashmir"(2023. 5. 22), *Guardian*.

26) "Key issues in India's massive general election"(2019. 4. 10), *Reuters*.

27) Kronstadt, Alan(2021), "Pakistan-U.S. relations,"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.

28) "After Osama bin Laden's death, Congress puts Pakistan on the hot seat"(2011. 5. 3), *CBS News*.

29) Afzal, Madiha(2021), "An uneasy limbo for US-Pakistan relations amidst the withdrawal from Afghanistan," Brookings; Kronstadt, Alan(2021), "Pakistan-U.S. relations,"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.

- 미국이 4자간안보대화(Quad), 인도·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(IPEF) 등 다자간 협력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전개하는 반면 친중국, 반인도 성향의 파키스탄과는 거리 두기를 지속할 전망이다.
  - 인도 모디 총리의 국빈 방미가 2023년 6월에 계획되어 있음.<sup>30)</sup>

■ [중국] 파키스탄의 디폴트 가능성이 심화되자 지난 10여 년간 파키스탄의 주요 자금공급원으로 부상한 중국은 ‘해외 금융 제공을 통한 수익 창출’이라는 경제적 실리와 ‘남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’라는 외교적 실리 사이의 딜레마에 직면함.

- 중국 일대일로 ‘플래그십’ 프로젝트로 불리는 중국-파키스탄 경제회랑(CPEC)을 통해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은 상황임.<sup>31)</sup>
  - 2023년 3월 기준 중국정부는 CPEC 프로젝트로 인해 파키스탄이 254억 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하고 6,000MW의 전력, 510km의 고속도로를 확충했다고 주장함.<sup>32)</sup>
- 중국은 일대일로가 ‘부채함정’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남아시아의 최고 우방국인 파키스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, 파키스탄의 반복적인 정치·경제 불확실성은 중국의 대외 개발협력 전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<sup>33)</sup>
  - 중국정부는 일대일로의 핵심 참여국인 파키스탄에 대한 채무를 스와프, 국영은행 신용 등을 통해 대폭 확대하고, 채무 상환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해 파키스탄을 지원해 옴(표 1 참고).
  - 2023년 2월 파키스탄 정부는 철도 개선사업 비용 40% 감축방안을 중국과 협의하겠다고 발표함.<sup>34)</sup>

표 1. 중국의 국제 구제금융(주요 대상국)

국가	'00	'01	'02	'03	'04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	'16	'17	'18	'19	'20	'21
파키스탄	●	●	●		●				●	●		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
몽골																						
아르헨티나																						
수리남																						
이집트																	●					
에콰도르										●		●	*	●	●		●					
나이지리아																						
러시아																						
스리랑카																				●		●
라오스																						●
튀르키예																						
벨라루스																						●
수단					●									●								

주: ■ 중국인민은행 스와프(상환기간 연장 포함), ● 중국 국유은행 유동성 공급, \* 자원 구입에 대한 선물.  
 자료: Horn, Sebastian *et al.*(2023), "China as an international lender of last resort," KIEL Working Paper.

30) The White House(2023), "Statement from White House Press Secretary Karine Jean-Pierre on the Official State Visit of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of the Republic of India."  
 31) "BRI cooperation with China 'transformational' for Pakistan: Ambassador"(2022. 3. 14), *Xinhua*.  
 32) "China-Pak ties are beyond reproach"(2023. 3. 8), "Consulate General of the People's Republic of China in Lahore."  
 33) "China's loans pushing world's poorest countries to brink of collapse"(2023. 5. 18), *Associated Press*; "Have China and Pakistan hit a roadblock?"(2023. 2. 9), *Foreign Policy*.  
 34) "China's mega railway project hits roadblock in Pakistan"(2023. 2. 6), *Bloomberg*.

### 3. 시사점

- 앞에서 살펴본 파키스탄의 5대 위기(채무, 생활고, 기후, 정치, 외교)로 인해 당분간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.
  - 사회적 불안과 국내외 정치적 마찰로 인해 파키스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짐.
  - 각 위기가 파키스탄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외부 자금 확보를 어렵게 해 디폴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.
- 파키스탄 불안의 여파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해 위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.
  - 한국기업은 파키스탄의 불안요인과 불확실성을 고려해 당분간 파키스탄 진출에 대한 보수적인 전략을 유지하면서 현지 정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.
  -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위치, 그리고 인구대국·핵무기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, 위기 심화 시 범지역 또는 범세계 차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, 한국정부는 파키스탄 내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다양한 상황별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
    -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디폴트 가능성을 크게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△IMF 구제금융 △반정부 시위 △대규모 홍수 및 피해 복구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(표 2 참고).

표 2. 단기적 파키스탄 내 위기 유발 요인

발생 가능성 \ 위기	채무 위기	생활고 위기	기후 위기	정치 위기	외교 위기
저	- 중국의 채무 상황기간 연장 중단	- 국제 에너지 및 식량 가격 상승 전환	.	.	- 국경지역 인도와의 군사적 마찰
중	- 국제금리의 뚜렷한 하락세 전환 지연 - IMF 구제금융 미지급 상황에 2023년 6월 말 지원 프로그램 종료	.	- 평년보다 심한 열파 - 대규모 홍수	- 임란 칸 전 총리의 총선 출마 불가가 법적, 물리적으로 확실시될 경우 유혈사태	.
고	- IMF 구제금융 지급 지연	- 재정 긴축에 따른 사회 안전망과 보건제도 약화	- 지지부진한 국제 지원에 따른 홍수 복구 지연	- 반정부·반집권여당 시위 확산	.

주: 파키스탄의 디폴트 가능성을 크게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요인은 굵은 글씨로 표시함.  
자료: 저자 작성.

- 파키스탄의 채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G20 등 국제회의에서 진행되는 관련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. **KIEP**